시 론

병든 사회 고치려면

하이얀 목련과 노오란 개나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봄을 노래하건만 IMF한파로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은 봄을 맞이할 여유가 없다.

늘어만 가는 실직 노숙자, 점심을 싸오지 못하는 중·고생, 급증하는 이혼, 이혼한 부모가 버린 아이들, 갓난아이를 버리는 미혼모, 그 갓난아이를 매매하여 앵벌이에 이용하는가 하면 십대 청소년들이 동반 자살하고 가족 3대가 함께 생을 끝맺기도 한다. 탈주한 강도범이 의적처럼 생각되어지는 세상,

자살 · 갓난아이 매매등 아수라지옥이 따로없다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도 전혀 죄의식없는 기업가,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 기득권 수호에만 급급하는 정치인들, 도대체 아수라 지옥이 따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통 사회가 병들어 있다.

최훈동 〈백산신경정신과 원장〉

잊그제까지 어엿한 직장인이요 믿음직한 가장이 실업자라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지던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쉽게 무너지고 만다. 그 가족 또한 심한 우울과 열등감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실업자가 2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 언제 해고당하고 파산될 지 모르는 대기실 업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적절히 달래줄 수 없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문제 뒤에는 경제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 십대 학생들의 자살 뒤에는 결손가정이 있다. 부모의 불화, 술주정하는 아버지, 과잉 간섭하고 통제하는 부모나 폭력적인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지나치게 과잉 보호하여 조그만 문제에도 부서져 버리는 유약한 아이로 만드는 부모 등 양 극단의 부모가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한 학교에서도 비민주적으로 교육받고 성적제일주의의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인격은 무시되고 일류학교만 목표로 삼게 된다. 십대들의 자살은 이러한 가정과 학교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똑같은 경우가 어른들의 자살에도 적용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공정하지 못한 인사, 부의 균등한 분배가 실현되지 않는 빈부의 현격한 차, 온갖 비리와 부정한 방법이 우리름(?)을 받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그들 자신에게로 향하여 자살을 택하는 것이다.

자살로 대표되는 사회병리의 문제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스트레스의 결과이다. 사회적 고통은 단순히 경제적 위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통은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관문이다. 고통없이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성숙한 사회를 기약하기 위하여 지금의 위기가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근원을 어리석음이라 설파하셨고 탐욕과 분노를 다스리라고 하셨다. 물질적 탐욕에 집착하고 자신의 안락만을 기원하는 신앙행위는 이 세상을 더욱 어둡게 만들 뿐이다. 물질적 빈곤을 단지 물질로써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시적으로 부유함을 맛볼 수는 있을지 모르나 또다른 정신적 빈곤위기를 맞이하고야 말 것이다.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 해결방법은 불교의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이다.

나만 잘 살고자 하지 말고 함께 살며(보시), 욕심을 다스려서 맑게 살며(지계), 분노와 급한 마음을 다스려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유지하며(인욕), 쉽게 벌어 잘 살려는 마음을 버리고 항상 노력하며(정진),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잘 성찰하여 산란하지 않고(선정), 바른 지혜로 외향적 물적 가치를 추구하는 중생의 삶에서 내면적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보살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종교인이 모범보여야 각성과 책임 필요할때

이러한 것을 주지시키고 이끌어가고 모범을 보이는 것은 우리 종교인들 몫이다. 하나의 촛불로써 온 방안이 환해지듯 종교인들의 각성과 책임이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이다.

열린마당

조계종 신도교무금

조계종중앙신도회가 신도교무금의 일부를 신도회 발전기금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신도회는 3월25일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영위원 모두가 사퇴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신도교무금에 관한 법에 따라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먼저 힘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양쪽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조직적 기반의 확보와 함께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총무원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도교무금을 둘러싼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창립 1주년을 맞은 중앙신도회와 총무원이 신도교무금 사용을 둘러싸고 물협화음을 내고 있다. 이를 계기로 신도회 재정자립을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중앙신도회 창립총회에서 송재건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직정비등 선행돼야 지원 검토"

지현스님 〈총무원 총무국장〉

중앙신도회가 출범한지 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중앙신도회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중앙신도회가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

중앙신도회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자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단의 지원 즉 신도증 발급업무의 신도회 주관과 교무금을 신도회 발전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신도증 발급업무를 중앙신도회에서 주관해 재정에 도움을 받겠다는 사고는 사실에 대한 오인인 동시에 업무자체의 어려움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 신도증 발급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신도증 발급용역비, 홍보비 등의 총액(올해예산 1억3천만원)은 신도교부금 수입과 유사하거나 미달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신도증 업무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며 생각처럼 수월한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신도교무금의 사용은 포교, 사회, 복지, 문화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교무금은 매년 적립하면서 종단의 일반 예산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교무금의 용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재 교무금을 신도회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종도들의 중의를 모아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더불어 중앙신도회가 신도 교무금을 신도회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다면 재정자립에 대한 자기 전망은 물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종단이 중앙신도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신도회 스스로 조직정비 방안을 내오고 발전전망을 수립하여 종단과 신도들에게 호소력있게 다가서는 일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중신회' 재정자립 위해 지원해야"

김동혼 〈중앙신도회 기획실장〉

중앙신도회는 불기 2538년(1994) 불자들의 열망을 한몸에 받으면서 진행된 개혁불사의 일환으로 기존의 전국신도회를 대체하여 창립됐다. 어용불교의 틀을 깨고, 시대적 여망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불교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가불자들의 대표기구인 신도회가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이 필요했다.

현재의 신도회는 본·말사(本末寺)신도회 대표들이 중앙신도회를 구성하고 있어 형식상으로는 민주적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운영내용에서는 사무실 임대료, 산하단체 활동지원금, 급료 등 경상비 일체를 신도회장 개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자립과 민주적 운영은 요원한 상태이다. 신도회가 명실상부하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상향식 조직뿐 아니라, 재정의 자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신도회에서는 재정 자립 방안의 하나로 신도증 발급 업무를 신도회가 주관하고, 교무금을 신도회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총무원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모든 재정 수입이 사찰과 총무원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사찰과 총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없이는 신도회 재정자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천만불자를 대표하는 신도회가 회원들의 회비 수입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회장 개인의 재정 능력에 의존한다면 종단과 불교 발전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사부대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단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힘있게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도회가 제자리를 찾고 사회적 역할을 전방위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신도회 발전을 위해 범종단 차원의 지도와 성원 그리고 종합적인 신도회 발전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종단지원-조직운영체계화 '조율'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중앙신도회는 종법상의 기구이다. 그러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총무원의 지도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종단과 동떨어진 기구가 아닌 다음에야 종단의 지원은 필요하다. 중앙신도회에서 지적하듯 재정자립을 위해 초기의 얼마간은 더욱 그렇다.

중앙신도회도 1년 동안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이 어떠 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전국신도회가 몇몇 간부들에 의한 조직운영이 되다보니 특정인에 의해 모양이 지어지고 색깔이 덧씌워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혁의 성과물인 중앙신도회 조차 예전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현 집행부에 있다. 리더십의 한계는 없었는지 짚어볼 일이다.

하부조직, 그러니까 교구신도회 및 지역 신도단체의 연합체로서의 중앙신도회가 되어야 한다. 재정운영도 분담금 제도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결합정도는 협의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느슨한 조직으로는 '명실상부'를 기대할 수 없다. 애초 출범 당시 서둘러 교구신도회를 조직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그러나 1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합리적 조직구성을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

제대로 된 조직을 갖췄다면 자체적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며, 총무원도 신도교무금의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그만큼의 투자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금처럼 난색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도교무금을 둘러싸고 서로 밀고 당기는 모양을 보여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중앙신도회 창립 이후 지금까지 두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반이며 동반지관계라는 점을 인식해 지금부터라도 진지한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

현재 신도교무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5억5천만원에 이른다. 96년부터 신도등록을 하며 받은 1만원씩의 교무금 중 해당사찰에 할당되는 5천원을 뺀 금액의 합계이다. 중앙신도회는 이 가운데 일부를 재정자립 기금으로 지원해줄 것을 총무원에 요청하고 있다.

신도교무금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해서는 '종단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8조 '교무금의 사용내역'에 따르면, '총무원은 교무금 수입을 포교, 사회, 복지, 문화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중앙신도회는 신도회 기금화가 교무금의 사용내역에 합당하다는 해석이다. 총무원에서는 설령 신도회 기금으로 쓸 수 있다

신도교무금이란

포교·복지·문화기금 활용

신도등록 수익 절반 종단 적립

해도 지금의 액수에서 일부를 떼어준다 해도 실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자칫 목돈을 쪼개면 푼돈처럼 쓰여져 표시도 안나게 바닥난다는 우려이다.

그러나 신도회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송회장과 월주 총무원장의 약속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송회장은 취임인터뷰에서도 총무원과의 협조를 전제로 회장직을 수락했으며, 교무금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총무원장이 약속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밝혔다.

총무원은 총무원장과 송회장의 약속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신도교무금법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회장이 이같은 얘기를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봐 신도교무금에 관한 모종의 언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겠느냐는 반응이다.

정성운 기자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계진 아나운서가 우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 10~10 00
13 25~14 15
22 00~22 50
매주 일요일
18 40~19 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벗고 나섰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놔보세요.
가슴속은 시원해지고 어깨는 으쓱해진답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tn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